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9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 당 (119)	봉 헌 (221)	성 체 (153)	파 건 (123)
---------	-----------	-----------	-----------	-----------

제1독서 | 탈출 20,1-17<또는 20,1-3.7-8.12-17>
화답송 | 시편 19(18),8.9.10.11(◎ 요한 6,68ㄷ)
 ◎ 주님, 당신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

제2독서 | 1코린 1,22-25
복음환호송 | 요한 3,16 참조



Praise to you, Lord Je- sus Christ, King of end-less glo- ry!

복음 | 요한 2,13-25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3/4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3/11	이 마틸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3/18	이 요한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3/25	이 그레이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미사책대금
	\$170	\$	\$100	\$5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24	황 가롤로/ 김 안드레아	3/31	유 요한/ 유 마리아
3/3	오 베드로/ 오 루시아	4/7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3/10	손 아놀드/ 손 켄마	4/14	홍 마르코/ 홍 아네스
3/17	이 글라라/ 장 글라라	4/21	김 요아킴/ 고 안나
3/24	이 요한/ 이 마틸다	4/28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다음 성체조배는 4 월 5 일 입니다.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서 만나는 시간 되시기바랍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7 시

오는 임원회의는 3 월 11 일 오후 7 시에 있습니다.

공동체 기도 성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8 시 (문의: 박 바오로)

모임 날짜가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 마르코복음과 함께 금요일 오후 7 시 (문의: 유요한)

다음 성경은 마르코복음 9,10 장을 필사하여 그것을 통독하고 나눔을 갖습니다. 장소는 성당 교리실 입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달 셋째주일 미사 후)

다음 소 공동체 모임은 3 월 18 일 주일 미사 후 있겠습니다..

한인공동체 조식 봉사 3 월 13 일(화) st. Vincent de Paul center

봉사해 주실 분들은 아침 7 시 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300 Bakers St, Bakersfield, CA 93305 문의: 이 그레이스

Thanks to \$300 donation from the American community.

십자가의 길 (금요일 오후 7 시)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이 매주 금요일 마다 오후 7 시에 있습니다.

사순 특강 3 월 18 일(일) 오후 6 시

중 남부 성령 기도회 지도 신부님인 정건석(프란치스코) 신부님을 모시고 사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이 그레이스 자매님이 둘째 손녀딸을 얻으셨습니다.

말씀의 이삭

'기도밭'은 있다

권중오 라파엘 -SBS 보도국 스포츠부장-

지구촌 눈과 얼음의 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환희와 감동, 좌절과 아쉬움의 순간이 교차한 17일이었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선수들은 큰 대회를 앞두고 정성껏 기도를 올립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밭'은 있을까요? 제가 만난 유명 스포츠 스타들은 거의 대부분 기도의 효험을 증언합니다. 참된 기도를 하려면 먼저 자신을 낮춰야 하는데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올리면 놀라운 정신력과 집중력이 생기고, 그것이 그대로 경기력으로 이어져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다고 합니다.

미국의 여자 다이빙 선수 로라 윌킨스의 꿈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을 남겨 놓고 오른발 발가락뼈 3개가 부러졌습니다. 청천벽력이었지요. 윌킨스는 포기하지 않고 부상 치료와 훈련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느님께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당일에도 그녀의 발은 완전하지 않아 세계 최강 중국 선수 2명을 넘기에는 버거워 보였습니다. 총 5회의 점프 합산 점수로 메달을 가리는데 윌킨스는 점프를 하기 직전마다 성경의 한 구절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적은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윌킨스는 첫 번째 점프에서 5위로 시작했지만 중국 선수들이 이후 믿기 힘든 실수를 연거푸 저지르며 무너졌습니다. 반면 윌킨스의 연기는 갈수록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결국 평생의 소원이던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느

님이 실제로 모든 것을 이뤄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식사 전 기도를 제외하고는 저는 일상생활에서 기도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미사 중에 영성체를 한 뒤에 기도를 올리는데 주로 제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많은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하느님은 선(善)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해주신다는 점ですよ. 기도는 '밀려야 본전'이 아닙니다. '기도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는 순간, 그 '기도밭'은 증기처럼 사라집니다. 로라 윌킨스가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마다 굳은 믿음을 갖고 기도드린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필리 4.13) <서울주보에서>

교리상식 영성체 후 감실에 인사해야 하나요?

성체를 영할 때 행렬을 지어 나와 성체를 모신 다음에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굳이 감실에 인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성체 후에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하나가 되었음에 감사드리고 침묵 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성체 후에 십자성호를 긋는 것도 불필요한 동작입니다. 미사 전례 전체를 볼 때 이미 미사 도입부에 성호를 그었고, 파견 예식 때 다시 성호를 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_「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